



문승우 도의회 의장, 재향군인회 공로취장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5일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공로취장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날 "문승우 의장은 재향군인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며 취장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로취장 수상은 문 의장이 평소 보여준 국가안보 및 보훈·향군 관련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꼽힌다. 문승우 의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가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건협 전북, 전문건설 장학금·장학증서 수여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전주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30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2026년도 장학금으로 선발된 72명에게 총 5,7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정학생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 선발을 축하했다. 수여식에서는 장학증서 전달과 함께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격려의 시간이 마련됐다. 임근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인재를 응원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준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밝은 내일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노력과 경험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소중한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도통동, 오늘까지 지신밟기 행사 추진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25일과 26일 양일간 한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동민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지신밟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신밟기 행사는 한해의 시작인 정초 보름날 안에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민사행통을 기원하는 민속놀이로, 도통동에서는 매년 동민 화합을 위한 행사로 동 농악단, 동 발전협의회, 통장단 유관기관·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 남원시청, 남원시의회를 비롯해 도통동 내 상가 및 시가지 일원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동충동(동장 박미라) 주민센터가 3월 3일부터 2026년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랑방은 △요가교실 △리얼댄스 등 건강 증진 강좌와 △민화교실 △우쿨렐레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 문화 강좌를 함께 운영해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월빙댄스'로 운영하던 강좌를 올해는 '리얼댄스'로 새롭게 편성에 참여 대상을 확대해 강사와 수강생들이 제6회 춘향제 등 지역 행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등 주민과 어우러지는 기회를 넓히고 배움의 성과가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원문화 확산... 전주-포스코이앤씨 '맞손'

2026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연계
덕진공원에 기업동행정원 조성
'정원도시 전주' 위상 강화



체류형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전주덕진공원에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정원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명품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와 (주)포스코이앤씨는 25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종진 (주)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5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2026년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덕진공원에 기업동행정원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정원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덕진공원 내 기업동행정원에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주)포스코이앤씨는 약 1억 원을 투입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정원은 (주)포스코이앤씨의 친환경 역랑과 공익가치를 담은 특화정원으로 조성돼 사람과 자연, 기업이 함께하는 치유와 교류 공간의 원터의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린 정원으로 계획 예정이다. 시는 이렇게 조성된 기업동행정원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덕진공원을 정원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정원 명소가자 정원도시 전주의 상징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올해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덕진공원에는 국립정원문화원과 공동 추진하는 코리아아뜰레쇼 작가정원 5개소와 서울시 우호정원 1개소, 전북현대모터스와 (주)포스코이앤씨 기업정원 2개소 등 총 8개 정원이 조성돼 국내 최고 작가들의 창의적 디자인이 담긴 특화정원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이들 정원이 시민 휴식 공간이자 치유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상설 전시하며 가꿀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정원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도시 안에 담아내는 모델"이라며 "포스코이앤씨의 ESG 역랑과 전주시의 정원도시 정책이 결합해 기업·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주)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주 기업동행정원 조성은 기업의 ESG 경영을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예향 문화 도시 전주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의 종합 엔지니어링·건설 전문 계열사로 1982년 설립 이후 제철소 건설을 비롯해 국내의 산업 건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는 글로벌 기업"을 비전으로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시티, 탄소저감형 건축·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 남·녀회장 이취임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5일 전주도립미술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남·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수봉 도의원, 영영선 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이회 회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회장의 출발을 축하했다. 공은태·윤정순 전임 회장들은 재임 기간 동안 조직운영 내실화와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보급자리를 제공하는 행복하우스 기금을 확대하는 등 도민 생활 안전에도 힘써왔다. 민국열·김성순 신임 연합회장들은 취임사에서 "의용소방대의 사명은 언제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활동 강화와 조직의 화합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용소방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기자



고창군 지사협 역량강화 교육·발대식

고창군이 지난 24일 오후 동라국악당에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관협력 복지 행보에 나섰다.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장,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공동체의 핵심축인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복지증진에 헌신한 전임 위원장 8명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과 고창군 14읍·면 위원장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사전교육에선 'AI·통합돌봄시대, 지사협 위원의 역할과 실천'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과 현장 중심의 복지 실현 방안을 공유하며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보공단 전북, 전주 재개발 현장 불시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에 나섰다. 공단 전북지역본부는 25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주 기차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인전한 알터 프로젝트'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공영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이상열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추락·폐인·부딪힘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조치와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위험성 평가 적정성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실질적 안전지휘 여부와 자율 안전보 건관리체계 작동 상태도 점검했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참석

지역인재 채용·자산운용 생태계 조성 가시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4일 오전 신한금융그룹이 개최한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렸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전북 금융허브 구축 첫 단계인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본부' 개소식과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 등 그룹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처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투자자산 일반사무관리사 선정 공고를 거쳐 12월 공단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2025년 12월 31일부터)이며, 평가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진행해 왔다. 국민연금은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투자자산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 체결 지원 등 일반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업무를 시작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본부에는 33명이 상주 근무하며, 이 중 7명을 전주 지역 인재로 채용해 지역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사무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수탁·리스크관리 등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종합허브를 전주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의 전북 금융허브 출범 선언과 신한펀드파트너스 개소로 전북혁신도시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에 활력이 생겼다"며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참여해 집적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3개 신탁, 전국 신탁 종합경영평가 대상 수상

전주삼천·무주안성·무주반딧불신탁 등

신탁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대전 유성구 소재 신탁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53차 신탁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전북 지역 3개 신탁이 2025년 전국 신탁 종합경영평가에서 각 군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종합경영평가는 전국 71개 신탁을 대상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6개 군으로 나눠 수익성, 건전성, 사회적 선명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삼천신탁(이사장 최태일)은 2군 127개 신탁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무주안성신탁(이사장 이내숙)은 5군 124개 신탁 중 1위, 무주반딧불신탁(이사장 지대신)은 6군 132개 신탁 중 1위에 오르며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전주호성신탁(이사장 김용식)은 5군 3위를 기록했으며, 예수병원신탁(이사장 주병진)은 전국 113개 직장 신탁 가운데 1위를 차지해 3년 연속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외기관 포상 부문에서도 수상 소식이 이어졌다. 전주삼천신탁 최태일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고창신탁 이정현 전무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군별 대상을 수상한 3개 신탁에 대한 중앙회장 표창도 진행됐다. 전주삼천신탁 조용관 전무, 무주안성신탁 조용환 사원, 무주반딧불신탁 심현배 전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2026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3월 3일 화요일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은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1단계 북스타트(0~18개월), 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19개월~35개월), 3단계 북스타트 보물 상자(36개월~취학 전)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도서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각 단계별로 참여자는 가방 북스타트 가이드북, 그림책 2권 등으로 구성된 책꾸러미를 배부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김제시는 25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김제타미널 사거리에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의 동참을 위해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결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김제경찰서, 김제시가족센터,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민·관·경 40여명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